

성모자도상에 나타난 흰색의 상징성

남 윤 숙

신라대학교 생활환경학부패션디자인산업학전공

A Study of the Color Symbol on Costume in the Virgin Mary and an Infant Jesus Icons

Yoon-Sook Nam

Professor, Division of Human Envirment Major in Fashion Design & Industry Sill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of color symbol on white in the Virgin Mary and an Infant Jesus icons. For this purpose, icons were selected and analyzed from the medieval ages to the 18th centur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cons on the subject of the Annunciation and the Nativity should be expressive of nobility, immaculacy and innocence of the Virgin Mary and an Infant Jesus. With this view, white was used to be color of candle, a waxing moon, lily, kettle, dress, bedspread, towel, wall encircled garden and became symbolic color in the Icons. As a result, the color symbol of white, the meaning of immaculacy and innocence, disseminated according to spread of the Christian religion. In these days, though elimination of the religious meaning, the white color is using continuously as a symbolic color of immaculacy and innocence.

Key Word : white, innocence, annunciation, color symbol, the Virgin Mary & Infant Jesus

흰색, 순수, 순결, 수태고지, 색채상징, 성모자

I. 序

복식에 사용되는 색채는 감각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로 인해 더욱 중요하다. 복식에 사용된 많은 색 중에서 흰색

은 특별한 상징성을 갖고 사용되고 있다. 흰색은 맑음, 순수함, 깨끗함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흰색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는 확대, 심화되어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육신과 영혼을 지닌 고귀하고 순결한 여성성을 상징하는 색채의 역할

을 하고 있다.

터너(Victor Turner)는 경험에서 나타나는 색과 자연에서 보여지는 색들 중 백색은 종교의식에 참가한 사람들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흰색이 갖는 의미와 상징이 종교상 요긴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게 한다.¹⁾ 오늘날 흰색은 종교와 무관한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종교적 관점에서 비롯된 흰색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현대의 복식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흰색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에서 중세 이래 색채를 사용하여 종교적 이념을 표현하던 풍습에서 비롯된다.²⁾ 성서 속에 정리되어 있는 종교적 이념이나 주장은 글을 읽을 수 없으면 그 의미의 전달이 불가능한데 이를 위해 제시된 방법이 바로 도상에 의한 것이다. 즉 구약이나 신약에 입각하여 그려진 교회의 벽화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들에게 종교적 이념이나 교리를 가르치고 선도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으로 책에 필적할 만한 효과를 내었다.³⁾ 이것은 당시 종교화의 제작 목적이 문맹한 민중들이 성서의 내용을 문자가 아닌 구체적 인 사물과 색채로 묘사한 '그림으로 보는 성경'의⁴⁾ 제작에 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중세 이래 인상주의 회화 이전까지의 시기에 활발히 그려진 그림이 성모와 아기예수를 그린 성모자도상이고 이중 대표적인 것이 수태고지와 아기예수의 탄생이다. 이들 성서적 사건은 기독교 이념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것이므로 그 내용 및 주제의 상징성을 감상자들에게 쉽게 전달, 파악시키기 위해 제작자들은 그림 속에 일정한 구상체와 색채를 재현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재현된 구상체의 색채는 결과적으로 감상자들로 하여금 성서적

사건의 주제를 상징하는 색채로 인식하게 하였다.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성모자도상에 묘사된 복색 중 흰색의 상징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복식에 나타난 흰색의 상징성 성립에 대한 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본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성모자도상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논문 및 책자들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였다.

로마멸망 후 통일 유럽의 전통을 계승 유지하여 서양의 정신적 문화적 지배자로 군림하고 그 사상과 교리가 오랜 기간 서방세계에서 인간행위의 규범으로 작용한 것이 기독교이다.⁵⁾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 이념인 수태고지와 아기예수의 탄생이 갖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도상에 묘사된 흰색의 상징성은 그림을 관람하는 대상에게 그대로 흰색에 대한 규범 또는 상징적 의미로 전달되므로서 흰색에 대한 상징이 성립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태고지나 아기예수의 탄생에 대한 종교적 내용이 본격적으로 제작된 것은 중세 이후 19세기 이전까지이다. 이에 따라 본연구에서는 중세 이래 18세기에 걸쳐 제작된 종교화중에서 수태고지 및 아기예수의 탄생을 주제로 하는 그림들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흰색에 대한 색채감정 및 상징성이 성립되는 한 과정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연구에서는 도상에 재현된 흰색의 상징성을 명료히 하기 위해 그림의 제작년대, 작가의 화풍, 양식이나 물체의 형태감 보다는 도상에 재현된 흰색이 나타내는 의미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이주호, 종교복식에 나타난 색채상징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p.5-6.

2) 요하네스 이텐, 김수석 역, 색채의 예술, 지구문화사, 1997, p.18.

3) Migne, P.gr.46,79, p.739. 인용, 에케하르트 케멜링, 이한순 역,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사계절, 1997, pp.73-74.

4) 서봉남, 기독교 미술사, 집문당, 1994, p.91.

5) 차하순, 서양사총론, 탐구당, 1989, p.123.

2. 연구의 한계점

성모자도상에 재현된 색채중 성모나 아기예수의 복식을 묘사한 흰색은 표백한 것과 같은 순백의 색상 만은 아니다. 흰색은 섬유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색이거나 표백을 해서 얻는 것이지만 고래로 자연 그대로의 섬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순백의 색상은 소량이고 이에 따라 순백의 직물은 많지 않았을 것이고⁶⁾ 또한 기술상의 문제와 원화(原畵)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쇄상의 차이나 오차도 있을 것이므로 도상에 나타난 흰색은 표백한 것과 같은 순백의 색상이기 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색상에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본연구에서는 채색이나 농담의 정도가 아주 연한 붉은 크립색, 베지색, 회색 및 청색 기미가 보이는 흰색은 흰색의 범주에 넣어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흰색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 해석하기 위해 작가의 화풍이나 양식 등을 배제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생각한다.

II. 성모자도상 및 구상체의 역할

1. 성모자도상의 역할 및 목적

미술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그것이 지니고 있는 어떤 의미를 비교, 분류하고 그 내용에 관해 연구하는 도상학(Iconography)이 필요할 정도로 기독교 미술은 작품 속에 상징적인 것을 함축하고 있다.⁷⁾ 이것은 문자로 표기된 책을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을 위해 의미가 부여된 구상체 및 그 색채를 도상에 재현하였기 때문인데 성 니콜라스와 교황 그레

고리우스 및 주교였던 마실리아 세레누스(Serenus von Massilia)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화에 대해 피력한 다음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알 수 있다. 글자를 모르는 이는 책을 읽을 수 없는 대신 구약이나 신약에 입각하여 그린 그림이 있는 교회 벽면을 쳐다보며 읽으므로 평신도에게는 글을 읽는 것보다 그림보는 것을 권할 만하다고 하여⁸⁾ 성서적 내용을 주제로 하는 그림들이 문맹자들에게 종교적 이념 및 세계관을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게 한다.

성령에 의한 마리아의 임신 및 그에 따른 아기예수의 탄생이라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대중이 이해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시공을 넘어 언제나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어야 한다. 더욱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구상체가 아니고 고귀함, 순결함과 같이 관념적인 것들일 경우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 속에서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보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어야 했다. 이를 위해 화가들은 도상에 신의 계시나 기독교적 숭배와 관련된 의미를 부여한 물체나 색채를 재현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상징성을 나타내었다.⁹⁾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게 성서의 내용을 묘사한 것이 바로 성모자도상이고¹⁰⁾ 이중 대표적인 것이 수태고지와 아기예수의 탄생이다.

2. 표현양식의 변화

성모자도상 속에서 성모자는 그림의 표현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처음의 엄숙하고 도식적(圖式的)인 모습에서 점차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초기 기독교시대 이래 의용적(義容的)인 도식 하에 '신

6) Soen Eye 16, 1994, p.51.

7) 미술도서편찬연구회, 미술사전, 우람, 1994, p.445.

8) 에케하르트 케멀링, 전게서, pp.74-75.

9) 에케헤르트 케멀링, 전게서, pp.81-82, 84.

10) 서봉남, 전게서, p.91.

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으로 천상(天上)의 권좌에서 장엄하고 위엄있게 표현되던 마리아는 점차 인간들의 생활터전인 지상으로 내려온 마리아의 모습 즉 평범한 생활주변의 사물들과 어울리는 인간적 감정을 지닌 겸손의 마리아로 표현되었다.¹¹⁾ 성모상의 표현양식과 함께 변화된 아기 예수상은 엄정함과 위대함을 갖춘 구세주의 축소된 상이 아니라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하거나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재롱을 떠는 아기로서 일상적 현실에서와 똑같은 의상이나 신체, 모양으로 인간적 행동을 하는, 어디까지나 인간으로서의 아기의 모습을 그려넣었다.¹²⁾

성모승배신앙이 크게 발달한 13, 14세기 이후 성모자도상은 시정과 같이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 장소의 전시물이나 큰 규모의 제단화로 사용되는 등 인간생활의 여러 장면 속에 깊숙히 파고 들었다.¹³⁾ 이와 같이 성모나 아기 예수를 두렵고 어려운 존재에서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로 묘사한 것은 기도를 드리며 그림과 교감을 하는 기도자들로 하여금 긴밀하고 격의없는 대상으로 성모자상을 대하고 받아들이게 하므로서 인간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크게 할 수 있었다.

3. 구상체의 종류 및 상징적 의미

1) 백합(lily)

성서 속에서 들판이나 계곡 또는 정원에 피는 꽃으로 자주 묘사되는(Song of Sol. 2:1-2, 5:13, Matt. 6:28-30, Luke 12:27-28, 1 Kings 7:19, 26) 백합은 자라나는 토양이나 향기, 생김새 및 색채에서 비롯되는 특유의 아름다움(beauty)을 나타낸다. 특히 백

합꽃은(white Madonna lily, *Lilium Candidum*) 주변 환경 조건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흰색의 꽃을 피어 내는 것에 비유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세속의 오염에 초연한 고귀함과 순수함 또는 순결함을 상징한다. 흰색의 백합꽃이 나타내는 이러한 의미는 확대, 심화되어 이성을 접하지 않은 여성의 깨끗함과 순결함을 의미하고 이것은 이상의 여성인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와 부합하기 때문에 백합꽃은 수태고지(annunciation, declaration)를 내용으로 하는 도상에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재현되고 있다.¹⁴⁾¹⁵⁾

2) 정원(garden)

둘이나 흙, 마른 나무와 같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폐쇄적인 공간으로서의 정원은 자연의 질서나 규칙이 성립되는 공간으로 낙원의 의미를 갖는다.(Matt. 26:36) 신의 보호 속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외부와 차단되어 오염되지 않는 공간인 정원은 연인들이 만나고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아름답고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로서 여성적인 속성을 갖는다.¹⁶⁾¹⁷⁾

나무나 과실들을 풍성하게 재배하여 푸른 나무, 아름다운 꽃, 새와 같은 진기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정원이나 들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상적인 장소이다.(Song of Sol. 4:12-16, 5:1, 6:2, Luke 13:19, 1 Kings 21:2) 신이 사랑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정원은 인간이 지켜야 하는 순수함과 순결함을 상징하고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은 밖의 세상 즉 세속의 오염에 대한 경계를 만들므로서 순결이 유지되는 장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원은 성서에서 은유적, 상징적으로 마리아의 순결을

11) 박성은, 15세기 플랑드르 사실주의 풍경화의 태동과 전개,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1993, pp.103-106.

12) H.W.켄슨, 이일 역, 서양미술사, 미진사, 1985, pp.81,91.

13) 이은기, 마리아의 도상변천과 종교상의 역할변천,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4 집, 1992, pp.93, 118.

14) Paul J. Achtemeier, Haper's Bible Dictionary, Harper & Row, 1985, p.562.

15) George Arthur Buttrick,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bingdon, 1962, p.133.

16)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pp.430-431.

17) 방근택, 세계미술대사전, 한국미술년감사, 1985, p.19.

나타낼 때 사용된다.

3) 분수(fountain)¹⁸⁾

물은 생명의 유지와 직결된다. 특히 전쟁 터에서 저수지나 샘, 분수로 부터 나오는 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안전감과 위안을 느끼게 하고 여성의 노동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사회에서 물은 개인의 부나 사회적인 지위를 알 수 있게 하는 척도이기도 하였다.(II Kings 18:31, Isa. 36:16) 물과 연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부서진 물레방아는 삶을 중단 시킬 수 있는 신의 힘을 의미하는(Isa. 41:18) 한편, 물은 아름다운 여성의 눈을 비유하기도 하였다.(Song of Son. 7:4-H7:5)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은 지상의 모든 생명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원초적인 모성을 의미한다. 에블라는 '성스러운 물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못한다. 여성 원리를 상징하는 것들 가운데에는 물의 기원으로서의 어머니나 생명을 표상하는 것이 많다'고 하여 물이 상징하고 있는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⁹⁾ 따라서 물을 공급하고 담아 두는 분수, 샘, 저수지 등은 인간과 모든 사물의 생명력과 함께 여성 원리를 상징한다.

4) 주전자(kettle)²⁰⁾

주전자, 병, 술, 냄비 등과 같은 용기(容器)는 그 크기나 형태에 차이는 있으나 그 속에 물건을 담고 요리하여 무엇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수용과 창조라는 개념과 인계된다. 따라서 이들 용기는 그 속에서

여러 힘들이 뒤섞여 창조의 의미를 갖고 새로운 세계를 생성한다는(Gen. 2:7, Jer. 18:1-6, Isa. 29:16, 64:8, Rome. 9:20-24) 것에 비유하여 여성적 의미를 함축하고 순수하고 정신적인 임신을 상징한다.²¹⁾

가죽이나 구리, 청동, 금, 은, 유리, 도자 등 다양한 재료중에서 대개의 경우 최고품으로 치는 것은 도기이고 특히 금속으로 만든 용기는 대단한 고품으로 성찬식에만 사용한다²²⁾ 반면 흙으로 만든 부서진 오지 그릇은 인간의 약함과 비유되어 철저하고 영속적인 파괴를 의미하는 상징물로 사용되기도 한다.(Lam. 4:2, Jer. 19:10-11)

이런 의미로 부터 주전자나 병과 같은 용기들은 물건을 수용하고 창조한다는 점에서 여성적 모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²³⁾ 한편으로는 쉽게 오염되어 깨어질 수 있는 순결 또는 순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5) 양초(candle)

양초 보다 사용의 역사가 오랜 램프(lamp & lampstand)와 랜턴(lantern)은 그 역할이 같으므로 같은 부류로 분류, 해석하였다.²⁴⁾ 불꽃 또는 램프는 다양하고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성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구약시대에 주로 사용된 도기로 만든 램프는 어둠을 밝히는 기능에서 유래하여 신의 눈(Zech. 4:1-14), 죽음과 어둠에 대비하는 구원이나 새생명(Jer. 10:13, 51:16), 영원한 삶과 정의(Matt. 5:15), 법을 의미하고(Prov. 6:23) 동시에 성스러운 아름다움 즉 순결을 상징한다.(Rev. 21:23, 22:5)

빛과 생명을 연관시켜 생각한 고대의 사상은 램

18) 엄밀한 의미의 차이는 있으나 물을 생갚게 하거나 저수하는 등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fountain, cistern, pool, pond 등을 상징적 의미가 같은 것으로 분류, 해석하였다.

19) 이승훈, 전개서, pp.175-179.

20) 규모는 다르지만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kettle, vessel, pottery, pan, oven, pot, caldron 등을 상징적 의미가 같은 것으로 분류, 해석하였다.

21) 이승훈, 전개서, p.308.

22) George Arthur Buttrick, ibid, p.783.

23) 이승훈, 전개서, p.65.

24) George Arthur Buttrick, ibid, p.64.

프의 불을 밝히는 램프스탠드의 가치를 신성한 숫자인 7개로 하여 생명의 나무를 의미하고²⁵⁾ 지성과 정신을 상징하였다.²⁶⁾

이상에서와 같이 램프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스러운 아름다움 즉 순결의 의미로서의 램프는 강력한 상징성을 갖고 성모자도상에 재현되어 성서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내었다.

6) 초생달 (new moon)

일찍부터 사람들은 달과 여성을 신비한 관계로 파악하여 여성적 특성을 달에 귀속시켜 왔다.

만월 다음에 다시 소생하는 초생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수용한다는 수동적 특성 때문에 여성적, 수동적 삶의 원리와 동일시 되고 재생이나 처녀의 이미지에 비유된다. 순결하고 신성한 여성은 초생달 위에 서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여 영원의 세계가 변화적이고 전환적인 세계 위에 존재함을 알려준다.²⁷⁾

7) 흰색(white)

구약에서 흰색은 동물(Zech. 1:8), 우유(Gen. 49: 12), 눈(Isa. 1:18)과 같이 어떤 대상의 자연적인 색이나 의복을 묘사할 때 사용하였다. 특히 의복을 만드는 재료인 직물의 경우 세정제를 사용하여 빨아서 정련 및 표백을 하고 햇빛에서 건조시켜 희게 만든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깨끗하게 변모된 흰색의 직물은 죄로 오염된 인간을 정화시켜 고귀하고 순결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Isa. 1:18, Dan. 11:35, 12:10) 신약에서 흰색은 부활한 예수(Matt. 17:2, 28:3), 천사(John 20:12, Acts 1:10)나 천상의 거주자들이 영광이나 환희를 나타낼 때 착용하는 옷의 색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구상체나 의복의 색으로 묘사된 흰색은 각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들 상징적 의미는 긴 역사 속에서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관념과 연계, 사용되므로서 더욱 깊어지고 확대될 수 있었다. <표 1>

<표 1> 구상체의 종류 및 상징적 의미

구 상 체	상징적 의미
백 합	고귀함, 순수함, 순결함, 깨끗함
정 원	낙원, 여성적, 평화 순수함, 순결함
분 수	여성원리, 생명력
추 전 자	여성적 모태, 순수 정신적 임신, 순결
양 초	신의 눈, 구원, 새생명, 영원한 삶의 정의, 순결, 법
초 생 달	여성적, 재생 수동적 삶의 원리 처녀, 순결 신성한 여성
흰 색	영광, 환희, 정화 고귀, 순결

III. 성서적 사건의 주제와 성모자의 이미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이념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데 있어, 교리나 전례의식을 통한 것이 직접적인 방법이라면 성모자도상에 채색된 구상체를 묘사하여 상징적 의미를 비유 또는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이다. 비유나 은유에 의해 전달되는 상징적 의미는 은연중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들어와 어떤 개념을 정립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수태고지와 아기에수의 탄생이라는 성서적 주제 및 이와 관련된 성모자의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5) George Arthur Buttrick, ibid, p.65.
 26) 이승훈, 전게서, p.154.
 27) 이승훈, 전게서, pp.110-112, 459-460.

1. 성서적 주제

1) 수태고지(annunciation)

수태고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성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에 의해 신의 아들인 예수를 잉태하였음을 알리는 성서적 사건이다.(Luke 1:26-38) 성령에 의한 잉태란 성모 마리아가 어머니 안나의 태내에 생긴 순간부터 전능하신 신의 특별한 배려와 그 아들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 때문에 인간의 원죄를 면하고 있다고 하는 가톨릭의 교의(1854년 제정)이다. 무원죄의 잉태를 알리는 수태고지는 기독교 사상의 근원적인 것으로 교의로 정해지기 이전에도 여러 화가들에 의해 중요한 화제(畫題)로 다루어졌다.

2) 아기예수 탄생

구세주(救世主)로서의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실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순결한 마리아의 몸을 빌어 하늘의 섭리로 태어난 예수의 출생은 이후 그를 믿고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아기예수의 탄생은 수태고지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성서적 사건이다.

2. 성모자의 이미지

성모 마리아를 존경하고 따르는 성모승배신앙은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의 어머니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마리아로 하여금 최고의 지성과 품위를 지닌 천상의 신으로서 빛에 속한 존귀와 우월함과 함께 모성과 자비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²⁸⁾ 순결의 성좌로 땅에 내려온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예수를 낳고 다시 승천한 이 모든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깨끗한 육신과 영혼을 지닌 순결한 여성의 이미지를 갖고 영적(靈的)인 추앙을 받게 한다.²⁹⁾ 다시 말하여 영구적으로 처녀성을 유지하고 깊은 영적 감수성과 믿음을 갖고 아들인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사후 승천한 마리아에 대한 승배신앙은 '오점이 없음', '빛에 속한 존귀와 우월함', '홀륭한 모성과 자비로움'을 내용으로 한다.

마리아 승배의 결과는 이브(Eve)를 통해 부각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상의 여인, 마리아에 대한 승배라는 종교운동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되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추종과 모방심리는 사회적으로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인간의 생각과 삶 속에 녹아 들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성령에 의해 세상에 나온 구세주 예수는 세상에서 최고(最高)이고 최선(最善)의 존재이다. 출생 직후의 모든 아기들은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인데 신의 섭리에 의해 순결한 모체로부터 태어난 아기예수는 더욱 신성하고 고귀하여 순수함 그 자체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고귀함과 순결함은 수태고지와 아기예수의 탄생을 그린 도상에서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메시지가고<표 2> 이 메시지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상에는 양초, 초생달, 백합꽃, 정

<표 2> 도상의 주제와 성모자의 이미지

주 제	구 분	이 미 지
수 태 고 지	성모 마리아	무원죄의 잉태 순결, 모성, 자비 오점이 없음 빛에 속한 존귀 우월함, 홀륭함
아기예수 탄생	아기예수	최고최선(最高最善)의 존재 깨끗함 신성, 고귀 순수함

28) 가톨릭 성인전 하권, 가톨릭출판사, 1988, pp.541-542.

29) 민중서각편집부, 세계대백과사전, 민중서각, 1996, p.152.

원, 분수, 주전자와 같은 구상체를 색채 중에서는 흰색을 사용하였다.

IV. 도상에 재현된 구상체 및 흰색의 상징성

1. 구상체의 종류 및 상징적 의미

1) 양초

수태고지를 그린 성모자상에는 양초나 촛불이 공통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도상에서 이 물체는 결혼을 뜻한다. 천지창조 첫날의 창조가 빛의 창조이고 이 빛의 창조를 시작으로 천지만물의 운행이 시작되므로 켜놓은 촛불은 최초의 빛을 상징하고 신성한 섭리의 시작인 결혼의 의미와 상통한다. 따라서 이제 막 꺼진 촛불 하나는 결혼식이 방금 끝났음을 즉 성령에 의한 임신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그림 1>에서 보여주는 탁자에 놓인 촛대의 불이 꺼져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방금 결혼이 끝나고 이제 막 성령으로 잉태하였음을 알리는 것이다.³⁰⁾ <그림 2>에서 성모에게 안겨 있는 아기 예수의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다.



<그림 1> 칸핀, 수태고지, 15세기, 世界の美術 49, p.3-242.



<그림 2> Carlo Crivelli, The Madonna of the Taper, 15c, 세계의 대미술관 13, Brera Milan, p.91.

<그림 3>과 <그림 4>는 예수탄생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두 그림에서 객사의 주인은 조심스럽게 촛불을 들고 있다. 초는 신의 섭리에 의해 잉태되고 탄생한 아기예수를 의미하고 온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초가 스스로 타면서 빛을 주듯이 희생을 통해 새생명을 주었기 때문에³¹⁾ 예수 탄생의 장면에서 묘사된 촛불은 성령에 의해 수태된 빛이신 예수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림 3> 칸핀, 성탄, 世界の美術 49, p.3-229.

30) 조용진, 서양화 읽는 법, 사계절, 1997, pp.156, 157.

31) www.cholian.net/~amotel.



<그림 4> 로 허투 반 데르 바이덴, 성탄, 世界の美術 49, p.3-227.

이상의 그림에 재현된 양초의 색상은 모두 흰색으로 묘사되어 있다.

2) 초생달

초생달은 순결하고 신성하며 영원의 여성인 성모 마리아를 의미한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깨끗한 이상의 여성인 마리아를 입상으로 나타낼 때는 승천상이거나 달을 탄 성좌의 모습으로 그려진다.³²⁾ 성모 마리아는 원래 순결의 성좌로 하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을 빌려주기 위해 땅에 내려왔다가 죽은 후 부활 승천하여 다시 하늘의 성좌가 되게 되어 있으므로 마리아가 지상으로 하강할 때나 천상으로 부활 승천할 때에는 초생달 위에 서있는 모습으로 표현한다.

<그림 5>는 성처녀가 충만한 빛과 광운(光雲) 속에서 여러 천사들에 둘러싸여 발 밑에 보이는 지구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림 6>은 지구를 승격하는 큰 뱀을 밟고 있는 천상의 인간으로서의 성모와 성모를 쳐다보고 있는 소천사들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에서 초생달을 타고 있는 성처녀는 바로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아 깨끗하고 순수한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고 흰색으로 묘사된 초생달은 마리아의 순결성을 상징한다.



<그림 5> Bartolome Esteban Murillo, The Immaculate Conception, 1678, 세계의 대미술관 5, Prado Madrid, p.96.



<그림 6> Giambattista Tiepolo, The Immaculate Conception, 1967-1769경, 세계의 대미술관 5, Prado Madrid, p.53.

3) 백합꽃과 정원

수태고지의 장면에서 거의 빠짐없이 재현되는 구상체는 백합꽃이었고 도상에서 백합꽃은 병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화병은 수용물. 백합은 여성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 마리아를 의미한다.

축복받은 성처녀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그린 <그림 7>에는 아기 천사의 손에 활짝 핀 흰색의 백합꽃 가지가 들려 있고 <그림 8>에는

32)조용진, 전서서, p.163.

독서하는 성처녀와 창 사이에 흰색의 백합꽃이 화병에 담겨 있다.



<그림 7> Bernardo Cavallino, The blessed Virgin, 1730년경, 세계의 대미술관 13, Brera Milan, p.77.



<그림 8> Master of Flemalle, St. Barbara Reading, 1938. 세계의 대미술관 5, Prado Madrid, p.123.

<그림 1. 2. 9. 10. 11. 12. 13>은 수태를 고지하는 천사와 그 소식에 접하는 마리아로 구성되는 수태 고지의 장면인데 백합꽃은 두 인물의 사이, 화면의 한 쪽 귀퉁이나 화병 속 또는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형태로 배치되어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수태를 고지하는 천사 가브리엘이나 소천사가 들



<그림 9> Fra Filippo Lippi, Annunciation, 1443-45년경, 세계의 대미술관 7, Pinakothca Munich, p.121.



<그림 10> 젠틸레스키, 수태고지, 1623경, 세계미술대사전, p.392.

고 있는 백합꽃은 무임수태한 마리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태고지를 그린 도상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흰색의 백합꽃이 묘사되어 있다. 고결한 장소에서 깨끗한 흰색의 꽃을 피우는 백합의 생태는 비유적으로 이성과의 육체관계가 없어 몸이 깨끗함을 의미하며 흰색의 백합꽃은 고결함과 순결함을 상징하고³³⁾ 수태고지를 묘사하는 구상체와 색채로 자리하

33) 조용진, 전계서, pp.108-110.



<그림 11> Van der Weyden, The Annunciation, 1430-1435년경, 세계의 대미술관 1, Louvre Paris, p.149.



<그림 13> Simone Martini & Lippo Memmi, Annunciation, 1333, Uffizip, p.16.



<그림 12> 반 데르 바이덴, 수태고지, 1458, 59년, 세계미술대사전, p.242.



<그림 14> 반 에이크, 로랑의 성모자, 1435년경, 世界の美術 49, p.3-237.

게 되었다.^{34),35)}

<그림 14>는 에이크의 작품으로 부르고뉴공국의 관방장관인 로란이 성모자를 향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다. 아름다운 궁전을 배경으로 한 현세적 상황 속에 성모와 아기 예수를 배치한 것으로³⁶⁾ 성모에게 안겨 있는 아기 예수의 뒤희 중앙에 세 개로

나누어진 아치형 개구부의 아래 부분에는 흰색의 백합꽃이 피어 있는 정원이 있고 이 정원을 작은 담이 둘러싸고 있어 외부와의 경계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5>는 천국의 낙원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천사들과 함께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흰색의 담으로 둘러 싸인 정원에서

34) 이승훈, 전계서, pp.208, 527.
 35) 조용진, 전계서, p.108.
 36) 요하네스 이텐, 전계서, p.98.

행복한 한 때를 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림 15> 라인 중류 지방의 화가, 천국의 낙원, 1420년경, 세계미술대사전, p.239.

담장으로 둘러싸인 닫혀진 뜰이나 정원은 집의 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여성적인 속성을 갖고 낙원인 에덴동산에서의 결함을 암시하고 동시에 마리아의 순결을 상징한다. 무성하게 푸른 나무와 과실과 지저귀는 새가 있는 정원이나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울긋불긋 꽃이 피어 있는 뜰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고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은 외부와의 경계를 만들어 오염으로부터의 차단 즉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므로 담장으로 닫혀진 정원이나 뜰은 마리아의 순결에 비유된다. 더욱이 그림 15에서와 같이 정원을 둘러싼 담장의 색을 흰색으로 채색한 것은 정원이 갖고 있는 의미에 흰색이 갖는 순결함이 더해져 성모의 순결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4) 샘(泉) 및 분수

모든 생명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샘솟는 물은 여성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마리아의 순결한 회태(懷胎)를 의미한다.³⁷⁾ 샘의 성모라는 제목의 <그림 16>에서 흰색의 포대기에 싸여 있는 아기 예수를 안은 성모가 서있는 뜰 한가운데에는 샘을 대신하는 청동의 분수가 배치되어 무원죄의 잉태 끝에 아기 예수를 출산한 성모의 순결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림 16> 디스 반 에이크, 샘의 성모자, 1439, 世界の美術 49, p.3-239.

5) 주전자

주전자나 병과 같은 용기는 그 안에 물과 같은 물질을 담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여성성을 갖고 순수하고 정신적인 임신을 상징한다. <그림 1>에는 수태를 고지하는 천사 너머로 벽에 걸려 있는 주전자. <그림 8>에는 벽난로 옆에 배치된 주전자. 그림 11에는 창문 가까이에 있는 주전자와 액체가 담긴 벽의 선반에 놓여 있는 병 등이 묘사되어 있다. 수태고지를 주제로 하는 이들 도상에서 주전자나 병은 양초, 촛대, 백합꽃, 화병 등의 구상체들과 함께 재현되어 성모의 순결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6) 기타

이밖에 흰색의 타올 <그림 1>이나 침대시트 <그림 10>도 수태를 고지하는 도상에서 순결을 알리는 상징물로 재현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태고지와 아기예수의 탄생을 그린 도상에는 성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성모자의 고귀함이나 순결함을 묘사해내기 위해 환색으로 묘사된 이들 구상체는 자연불이거나 일상

37) 방근택, 전개서, p.19.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단독 또는 여럿이 함께 배치되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색채에 대한 감정과 반응은 현실의 심층에서 작용하는 단일하고 동시적인 조건에 상응하여 나타나기 때문에³⁸⁾ 눈으로 보는 성경의 역할을 위해 활발히 그려졌던 성모자도상에 흰색으로 묘사된 구상체는 그대로 성서적 사건의 이미지와 함께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자리잡게 되었을 것이다.

2. 도상에 묘사된 성모자의 복색

성서에서 옷을 입는 것은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상태 즉 하느님의 영광을 입는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옷을 벗기우는 것은 身分의 喪失, 공동체에서의 추방, 창조적 혼돈으로 다시 돌아가며 세상질서에 참가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³⁹⁾ 도상에 표현된 성모자의 복장과 복색은 단순히 신체록 감싸는 이상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1) 성모의 복색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기호로서 상징성을 나타내는 복색은 성모도상에서 성모와 아기 예수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모의 복장은 구조적으로 맨틀, 드레스, 베일의 3중구조이다.⁴⁰⁾ 도상에 표현된 마리아의 몸짓, 옷모양은 젊은 여성미의 이상을 구현한 것으로 때로는 위엄있게 때로는 간절하고 가냘프게 표현하여 천상의 우미함을 갖춘 모습으로 형상화 하였다.⁴¹⁾

<그림 17>에서 딱딱하고 곧은 자세의 성모 마리아가 맨틀 밑에 입고 있는 드레스나 <그림 18>에서와 같이 성모와 천사가 입고 있는 드레스의 색은 모



<그림 17> Giotto, Virgin enthroned, 1310, Uffizi, p.16.



<그림 18> 프라 안젤리코, 수태고지, 1438년경, 세계미술대사전, p.34.

두 흰색이다. 성모의 대관을 묘사한 <그림 19>와 <그림 20>에서 보는 마와 같이 천상의 무한함을 상징하는 반원⁴²⁾ 위에서 대관식을 하는 성모는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전신을 가린 맨틀과 드레스 <그림 19>를 입었거나 맨틀 밑에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인데 <그림 20> 이들 옷은 흰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그림 5>와 <그림 6>과 <그림 7>에서 성처녀들이 입고 있는 드레스, <그림 15>에서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성모의 드레스, <그림 21>에서와 같이 성모의 전신을 드레이프한 옷의 색은 모두 흰색

38) 이승훈, 전계서, p284.

39) 오춘자, 성서를배경으로 한 히브리(Hebrew) 복장의 상징적 의미, 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pp.45-49.

40) 김혜연, 중세말기(14-15세기) 회화를 통한 복식연구, 복식 13, 1989, p.94.

41) H.W.젠슨, 전계서, P.80.

42) 요하네스 이텐, 전계서, P.50.



<그림 19> Lorenzo Monaco, Coronation of the Virgin, 15세기, Uffizi, p.21.



<그림 20> 프라 안젤리코, 성모의 대관, 1428경, 세계미술대사전, p.350.



<그림 21> Pisanello, The Virgin & Child with SS.George & Antony Abbott, 世界の美術 43, p.3-58.

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와 같이 예수의 탄생 직후의 장면에서 두 손을 앞으로 모우고 무릎을 꿇은 경건한 자세의 마리아 역시 흰색의 드레스와 맨틀을 착용하고 있다.

<그림 22>는 왕골로 짠 불가리개(fire screen) 앞의 성모자상을 묘사한 것이다. 1430년경의 폴랑드르의 부유한 시민계급의 지택의 실내를 배경으로 한 이 그림에서 성모자는 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15세기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부르주아 계급의 증가는 종래의 왕과 귀족 또는 부유한 성직자들을 위한 예술작품에 새로운 취향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림 속의 성모자의 모습은 더욱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그림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와 도시를 향해 열려 있는 창문 사이에 성서를 놓으므로써 아기 예수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적인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성모가 입고 있는 전신을 가리우는 드레스의 색은 흰색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림 22> Campin, the virgin & Child before a Firescreen, 1430년경, 세계의 대미술관 12, London, p.8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리아의 일생은 종교적 역할이나 의무에 따라 천상의 신과 지상의 신으로 구별한다. 순결의 성좌로 하늘에 있을 때와 부활 승천하여 다시 하늘의 성좌에 오르게 되었을 때의 마리아는 천상의 신으로 표현하고 예수를 잉태, 출

산하기 위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들 속에 있을 때의 마리아는 지상의 신으로 표현한다. 성모의 복색에서 흰색은 원칙적으로 천상의 신으로 묘사할 때에 사용되는 색이지만⁴³⁾ 도상의 발전과 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지상의 신으로 묘사할 경우에도 성모의 복색은 흰색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 도상에서 성모의 복색을 흰색으로 묘사하여 성모의 순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 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천상과 지상의 신으로 존재한 높고 귀한 신분인 성모의 복색을 흰색으로 묘사한 것은 흰색의 이미지와 위상을 천하지 않고 높게 하였다. 다시 말하여 성모의 복색으로 묘사한 흰색은 성모의 순결함과 고귀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색채임을 알게 한다.

2) 아기예수의 복색

아기 예수가 탄생한 직후 동방박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하례를 받는 장면에서 아기 예수가 신체에 접하고 있는 직포의 색은 거의 모두가 흰색이다.

성서에는(Luke 2:12) “한 갓난 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라고 하여 아기 예수를 감싸고 있는 포대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그림 23, 24, 25, 26>에서 볼 수 있듯이 탄생 직후의



<그림 24> Hans Memling, Adoration of the Kings, 1470년경, 세계의 대미술관 5, Prado Madrid, p.124.



<그림 25> Correggio, The Nativity, 1513-14년, 세계의 대미술관 13, Brera Milan, p.142.



<그림 23> 안 드 베르, 세 박사의 경배, 세계의 대미술관 13, Brera Milan, p.152.



<그림 26> Giorgione, Adoration of the Shepherds, 세계의 대미술관 9, Vienna, p.43.

43) 城一夫, 人間素材文化史, 衣生活 3, 衣生活研究會, 1987. 6, P.30.

아기 예수를 싸고 있는 포대기의 색은 모두 흰색이고 조금 더 성장한 후에 <그림 27, 28, 29> 신체를 싸고 있는 직물의 색도 역시 흰색이다. <그림 18>에서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는 아기 예수의 드레스나 그것을 가르치는 천사의 맨틀의 색은 모두 흰색이고 수태를 고지하는 천사들이 입고 있는 드레스의 색 <그림 9, 그림 10, 11, 12> 역시 거의 흰색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림 27> 얀 반 에이크 교회의 성모자, 1425년경, 世界の美術 49, p.3-240.



<그림 28> 얀 반 에이크, 멜보른의 성모자, 1433, 世界の美術 49, p.3-230.

탄생 직후의 아기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



<그림 29> 로하트 반 데르 바이덴, 성모를 그리는 성 루카, 1453년경, 世界の美術 49, p.3-247

시품인 포대기는 예수가 태어나서 최초로 신체에 접하는 의류이고 그 색이 바로 흰색이라는 것은 흰색에 대한 의미를 깊게 하고 그 위상을 더욱 높여준다.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깨끗하고 때묻지 않아 순결함 그 자체인 아기예수가 유일하게 몸에 걸치고 있는 포대기의 색을 흰색으로 하여 흰색과 순결함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예수탄생 <그림 3, 4>에서와 같이 경건하게 두 손을 모우고 있는 성모의 옷의 색과 수태를 고지하는 천사들의 <그림 9, 11, 12> 옷의 색은 모두 흰색으로 이들의 복색이 모두 흰색이라는 것은 예수탄생의 순수성, 고귀함을 흰색으로 나타낸 것이다. 오점과 군더더기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색채로 어떠한 잡스러운 것도 끼지 않은 깨끗함을 갖는 흰색은 아기 예수의 순결함과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함을 의미하는 상징색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맹자들에게 성서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도상에서는 백합꽃, 담장에 둘러싸인 정원, 분수, 램프, 주전자와 같이 자연이나 생활주변에서 쉽게 보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체를 은유(隱喩)하여 고귀함, 순결함, 순수함과 같은 추상적 관념을 구상화하고 그것의 색을 흰색으로 채색하여 관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구체화

하고 강조하였다.

수태고지나 아기예수의 탄생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고귀함, 순결함 또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나 특성은 흰색에서 오는 감각 및 정서와 어우러져 독특한 의미를 갖고 형성되므로서 흰색은 이들 개념을 상징하는 색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상징의 사용은 드러난 대상의 느낌과 그것이 함축하는 이념과 관련되기 때문에 종교적 목적에서 성모자도상에 묘사된 흰색은 숭배와 존경의 대상인 성모자를 따르고 모방하고자 하는 심리가 도상의 표현양식의 변화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고귀함과 순결함이라는 상징성의 확립으로 연계되게 되었다.

IV. 결 론

본연구는 종교적 목적에서 제작된 성모자도상에 재현된 구상체 및 흰색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도상의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모자도상은 문맹자들에게 종교적 이념 및 세계관을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려진 종교화이다.

둘째, 성모자도상중 수태고지와 아기예수의 탄생을 그린 도상에서 전달하고자하는 것은 추상적, 관념적인 것으로 성모자의 고귀함과 순결함에 대한 것이다.

셋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도상에는 특정의 의미를 가진 물체의 색채를 흰색으로 묘사하였다.

넷째, 도상에 재현된 백합, 정원, 분수, 주전자, 양초, 초생달과 같은 구상체는 고귀함, 순결함, 여성성, 성스러움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영광, 환희, 평화, 고귀, 순결 등을 나타내는 흰색과 결부되어 고귀하고 순결한 대상으로서의 성모자를 상징하게 되었다.

도상에 묘사된 구상체와 흰색이 의미하는 상징성은 종교화의 역할수행과 함께 전파되어 성모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흰색은 고귀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인식되고 활용되게 되었다. 자연물로 부터 유추되어 직관적인 지각이나 감정적 경험 또는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제작되어진 흰색에 대한 이미지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신과 연결된 상징의 의미를 갖는 종교적 우의와 결합되어 주관적이면서 근본의 깊은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가톨릭 성인전 상. 하권, 가톨릭출판사, 1988.
- 가톨릭 교리 신학원 엮음, 초대받은 당신, 서울대학교 사목국, 1985.
- 국어소사전, 을유문화사, 1960.
- F.E.존스톤, H.셀비, 권이구 역, 현대문화인류학, 탐구당, 1990.
- 김영미, 김민자, Renaissance Icon화에 표현된 복식의 종교성과 세속성, 생활과학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1995.
- 김혜연, 중세말기(14-15세기) 회화를 통한 복식연구, 복식 13, 1989.
- 김혜연, 중세말기(15-16세기초) 회화를 통한 복식연구, 복식 17, 1991.
- 동아원색대백과사전 11, 동아출판사, 1983.
- 류형기, 성서대사전, 한국기독교문화원, 1980.
- 미술도서편찬연구회, 미술사전, 우람, 1994.
- 민중서각편집부, 세계대백과사전, 민중서각, 1996.
- 방근택, 세계미술대사전, 한국미술년감사, 1985.
- 박성은, 15세기 플랑드르 사실주의 풍경화의 태동과 전개,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5집, 1993.
- 서봉남, 기독교미술사, 집문당, 1994.
- 성서(가톨릭용), 대한성공회, 1986.
- 성서백과대사전 3, 성서교재 간행사, 1980.
- 성서백과대사전, 서문당, 1975.

- 성서사십주간 사권, 성서와 함께, 1994.
- 유준상 외, 세계의 대미술관 1권-13권, 탐구당, 1977.
- 요하네스 이텐, 김수석역, 색채의 예술, 지구문화사, 1997.
- 오춘자, 성서를 배경으로 한 히브리(Hebrew) 복장의 상징적 의미, 이대 대학원, 1979.
- 이은기, 마리아의 도상변천과 종교상의 역할 변천,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4 집, 1992.
-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 이주호, 종교복식에 나타난 색채상징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Faber Birren, 김화중 역,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1985.
- William Charles Libby, 이양자 역, 색채와 구성적 감각, 미진사, 1988.
- H.W.젠슨, 이일 역, 서양미술사, 미진사, 1985.
- 에케하르트 케멜링, 이한순 역,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사계절, 1997.
- 조용진, 서양화 읽는 법, 사계절, 1997.
- 차하순, 서양사총론, 탐구당, 1989.
- 城 一夫, 人間と素材の文化史, 衣生活 3, 衣生活研究會, 1987.
- 世界の美術 43, 朝日新聞社, 昭和 54, 1.
- 世界の美術 49, 朝日新聞社, 昭和 54, 3.
- Encyclopedia Britannica 14, Encyclopedia Britannica, 1966.
- George Arthur Buttrick,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bingdon, 1962.
- Kax Wilson, A History of Textiles, Westview, 1982.
- Margherita Lenzini-Emma Micheletti, Masterpieces of the Uffizi, B.E.T, 1988.
- Paul J. Achtemeier, Harper's Bible Dictionary, Harper & Row, 1985.
- soen Eye 16,1994.
- www.cholian.net/~amotel